

## 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무용심리분석

김정숙\*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예술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동시에 스스로를 알아가고 개인의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을 연결해주는 심리적이면서 물리적인 매개라고 할 수 있다. 무용예술에서 예술은 현상의 표면적인 모사를 뛰어넘는 인간 내면세계의 표출이라는 미메시스의 의미는 외면적 실재의 재생이 아닌 내면적 실재의 표현이라는 무용의 예술상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sup>1)</sup>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술의 모든 장르에서 핵심은 움직임(move)이다. 몸의 움직임을 매개로 하는 무용예술은 움직임의 근원적 요소를 해석하며 예술을 발현시키는 장르이기에 몸과 움직임 그리고 예술역량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술역량이란 개인의 인성과 기본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예술에 그 기반을 둔다. 역량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단순한 의미의 경험적 축적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심신의 다양한 인지적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 무용을 예술로서 이해한다는 의미는 움직임이라는 연속성의 형상이 의미를 파생하고 무용수와 관객은 예술적 특수성의 영역에서 예술적 공감을 향유한다는 것이며 신체를 통한 내면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무용은 움직임의 물리적 운동성이 생명력으로 발휘할 때 예술로서 그 기능을<sup>2)</sup> 가진다. 최근 예술적 움직임을 문화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재창출한 연구가 있었는데 2017년 12월 방영된 EBS 기획프로그램 '미래 강연'이다. 이는, 움직임을 과학과 함께 융합적 분석으로 이끌어 움직임 예술의 문화적 가치를 폭 넓게 제시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무용예술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발점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었다. 기존의 무용예술은 라반이론 학습을 중심으로 무용안무와 무대공연이 주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에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다양한

\* 부산대학교 연구원, dance1202@daum.net

1) 이승건(2007), '표현미학'에서 본 무용예술, 『미학·예술학 연구』 25, pp.285-321.

2) 김지원(2016), 공연예술로서 무용의 '생명적 기능'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33, pp.195-222.

양상으로 무용예술을 접목하여 프로그래밍화 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무용예술의 독특한 움직임이 다양한 문화와 융합되어 다차원적으로 발전되고 일반화될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무용은 모든 예술 중에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술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가장 역사가 오랜 비언어 예술이며 몸을 통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인 언어이기에<sup>3)</sup> 무용예술에서 완벽한 신체구성과 표현력은 중요하다. 신체를 매개로 하여 미학적 움직임을 창출해내는 예술 문화로서의 무용에서, 창의적 표현과 교육적 요소는 작용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창의적 표현의 관점에서 무용예술인에게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화려함 뒤 무대설치 및 조명과의 조화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실제적으로 무대와 조화되는 신체의 움직임이 작품에 반영되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인지되는 자신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혼란의 고통과 함께 창의적 노력에 대한 고민을 깊어져야만 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무용 전반의 전문성을 보다 깊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함께 무용예술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러한 무용예술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무용의 특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인지분석은 무용예술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무용작품을 생산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더욱 견고하게 생성시키기 위한 기반으로서 신체의 의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용예술에 대한 심리연구는 무용예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초석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몸, 현상적 신체는 육체적 존재임을 말하며 나의 실존을 표현하고 신체를 가진 모든 움직임을 움직임에 대한 의식임과 동시에 움직임 그 자체로 무용은 신체와 의식의 합일로서 총체성과 연속성의 균형이 예술로서의 가치를<sup>4)</sup> 가진다. 예술은 순수한 생성의 영역으로서 논리적인 허구나 매개인 도그마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독창적이며 효과적인 생산으로서의 리즘(시뮬라크르)이다. 즉 춤추는 신체로서 무용수의 생생한 움직임의 경험은 미적으로 투사되거나 수용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재 융합하여 전혀 다른 지층을 형성해 낸다.<sup>5)</sup> 무용예술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무용수의 신체는 그 자체가 무용예술의 표면적 실체로서 곧 예술이라는 것이다. 무용예술에서 무용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미 즉, 몸을 이해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이며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sup>6)</sup>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특히 무용수의 움직임은 몸은 대자존재로서 의식의 지향성 안에 있으며 무용수의 의도에 따른 채색된 사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현상에 의해 움직이며 표현되는 몸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드러내줄 뿐만 아닌 구체적인 존재로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sup>7)</sup>을 말해준다. 따라서 무용수의 몸은 보여지는 몸으로서 대상성을 가지는 초월적 의식으로 현존하는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예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무용예술인들에게 외상화된 자기체계(Traumatized Self-System)는 창의적 활동을 요구하는 예술 작품을 수행할 때 자신을 중심으로 타인과 환경에 의해 외부에서 받게 되는 부적요소를 이해하고 제거하는데

3) 김말복(2005), 무용수의 몸, 『무용예술학연구』 15, pp.1-29.

4) 황미숙, 권오륜(2002), 현상학을 통한 무용예술에서의 신체관, 『움직임의 철학』 10(2), pp.419-435.

5) 김정은, 신현군(2004),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를 통한 무용예술에서의 미학적 신체관, 『움직임의 철학』 12(1), pp.447-465.

6)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객체화 신체의식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26, pp.51-63.

7) 박미영(2013), 무용예술에서의 타자의 시선과 몸, 『움직임의 철학』 21(1), pp.317-333.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심리요인이다. 특히 감각과 감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무용예술인들에게는 심리와 신체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외상(Trauma)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체계(Self-System)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상(Trauma)을 분석하고 완화시키는 훈련이 요구된다. 무용예술의 제작 과정에서는 다양한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예술을 이해하고 표출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매개로 하는 그 중심에서 나타나는 예술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존재적 공허감과 표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네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반성·자각·체계·통합성 그리고 지속성을 의미하는 주체적 자기(I-self) 손상, 인간으로서 가치보다는 하나의 대상(object)으로 경험될 때의 혼란을 의미하는 대상적 자기(Me-self) 손상, 자기 자신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과잉적으로 이해하며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일으키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손상,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함께 반복적인 피해의식을 갖는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 손상<sup>8)</sup>이다. 이러한 의미의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자신 내부에서 손상되는 자각 능력에 의해 내적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주체적 통제력의 결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외상으로 상호소통의 결여감을 발생시켜 삶 전반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형이상학의 의미가 높은 예술분야에서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 아래에서, 본 연구는 무용예술에 관련된 부적 심리요소인 트라우마를 분석하여 예술작품의 제작과 무용교육에서 발생하는 많은 매개 요소들의 긍정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무용의 과정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음악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몸짓을 보고 상대를 의식)되기 때문에 그 반응에 따른 감정의 증용은 중요하며, 관객이라는 타자에 대한 인정의 욕구는 춤을 추는 과정의 자기의식과 동작의 완성과 작품을 이루는 자기존중이 전제되므로 무대에서 무용수 자신과 더불어 사회적 의미의 관객으로 공존되는 자기존중과 공적존중이 함께<sup>9)</sup>한다. 즉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술을 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무용을 수행하는 예술인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현상에 관한 연구들<sup>10)</sup>을 보면 무용수에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드러내고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함의는 직·간접적으로 무용수에게 필요한 긍정적 심리요소를 높이고 부정적 매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제 무용예술의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용예술의 심리적 강점을 도모하고자 무용핵심역량(창의융합사고, 신체표현, 소통, 사회적 관계)을 밝힌 정은주<sup>11)</sup>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표출되는 심리적 다양

8) Allen, Jon(2001), *Traumatic Relationships and Serious Mental disorders*(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p.16.

9) 박미영(2012),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개념에서 본 무용예술에서의 감정, 『움직임의 철학』 20(3), pp.275-292.

10) 고주혜·김승재(2006),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신체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5), pp.199-210.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객체화 신체 의식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26, pp.51-63.

성창훈, 유현경(2004), 청소년 무용 전공생의 신체적 자기지각 구성요인, 『한국체육학회지』 43(6), pp.909-917.

유진, 장귀옥(2003),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 프로파일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pp.235-248.

이해준, 최진실(2017), 무용전공대학생이 인지하는 '나', 『한국체육학회지』 56(1), pp.633-644.

정연수, 박종길(2013), 무용열정과 정체성, 과제관여의 인과적 관계 및 모형 안정성 검증, 『한국무용학회지』 24(3), pp.23-38.

11) 정은주(2017), 학교문화에 예술교육 무용핵심역량의 경험적 탐색,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77.

성을 다루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술교육이라는 사실을 철학적 이론으로 제시하며 예술역량을 강조한 박유정<sup>12)</sup>과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적의미를 설명한 박영선<sup>13)</sup>의 질적 연구는 인간과 예술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며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부적요인을 분석하고 이해해야하는 무용예술의 역량적 차원을 보강하며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의 이론적 근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무용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무용예술에서 심리의 이론적 토대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고대 철학과 일반 심리이론을 부분적으로 결부하여 의미를 부여하거나 간혹 무용치료와 혼용되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무용심리의 보다 체계적인 이론 설립과 그 적용에 대한 요구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용예술에서 예술역량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외상화된 자기체계 즉,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심리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몸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신비한 원천이자 동시에 마음이 체화되는 구체적 실재로 여겨져 왔다. 몸을 매개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예술세계가 무용이라는 의미성 아래, 무용예술과 그 움직임은 무엇보다 과학적이면서 예술적인 면모 또한 갖춘 문화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를 중심으로 예술성을 형성해 나가는 무용예술의 전반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심리 현상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심리요소를 제거하여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역량을 성장시키는데 일조하려는 목적 아래 진행되었으며 긍정적 심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지역의 무용과 소재 대학교와 개인 무용단에서 317명의 무용관련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20분의 설문작성을 소요한 뒤 수거되었다. 부적절하게 응답한 질문지 11부는 제외하고 예비조사에서는 50명에게 적용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256명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n)	성별(n)	전공(n)
대학교(174)	남(21)	한국무용(76) 현대무용(51) 발레(47)
	여(153)	
개인무용단(122)	남(10)	한국무용(62) 현대무용(39) 발레(21)
	여(112)	

12) 박유정(2017), 하이데거와 예술교육 - 예술교육의 역사와 하이데거, 『한국문화융합학회』 39(6), pp.389-414.

13) 박영선(2017), 예술과 교육 - 실리의 미적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5), pp.121-148.

## 2. 연구절차 및 분석

58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 초안을 이용하여 무용예술인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척도의 이해와 분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자가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을 설명하고 기입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고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예비조사에 따른 검사지의 최종 분석을 위해 256명의 무용관련 예술인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1명을 재 신뢰도 검사를 위해 선정하여 3주 뒤에 다시 재측정을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WINDOWS용 SPSS/PC+ 과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척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들의 특성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및 문항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내적일치도 계수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검사와 재검사간의 관계를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여 검사지의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측정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도구는 본 연구의 연구의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장진이와 안현의<sup>14)</sup>가 한국

<표 2> 외상화된 자기체계척도 구성요소

요인	범주	내용
주체적 자기 손상	자기지속성 손상	일관된 자신임을 이는 능력의 손상
	자기반성 손상	자신의 내적 상태와 변화에 대한 탐색 능력 손상
	자기자각 손상	자신내부의 욕구, 정서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손상
	자기통합성 손상	통합되거나 단일한 자기감의 손상
	자기주도성 손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 의지력의 상실
대상적 자기 손상	부정적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자존감이 결여되는 자기비난을 포함하는 부정적 자기감
	죄책감	외상경험에 대한 귀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수치심	외상경험에 대한 귀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좋고 나쁨의 경험된 정서
자기조절 손상	과소 자기조절	외상경험으로 인한 강한 정서에 의해 압도당하는 정서조절 손상
	과잉 자기조절	회피 및 해리와 같은 정서적으로 무감각과 억제외상에 대한 대처의 기계
	자기파괴적 행동	충동적 성향과 행동 조절의 실패로 나타나는 자해행위, 폭식, 폭음
관계적 조절 손상		타인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속적인 관계 유지의 어려움.

14) 장진이, 안현의(2011),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3(2), pp.359-385.

관으로 개발한 외상화된 자기체계(Traumatized Self-System) 척도의 4개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하위 요인은 주체적 자기 손상(24문항), 대상적 자기 손상(15문항), 자기조절 손상(15문항), 관계적 자기 손상(4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평정척도(1: 매우 그렇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표 2>는 외상화된 자기체계척도의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 III. 연구결과

#### 1. 문항특성 분석

외상화된 자기체계 심리 척도의 문항특성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1문항에 대한 Item-total statistics를 보면, Cronbach's  $\alpha$ 값은 .8382로 양호한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 50과 나머지 문항들의 합계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문항 10과 나머지 50개 문항들의 합계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0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항 10은 문항 내적 일치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항분석 기술통계

	문항 제거 시 척도 평균	문항 제거 시 척도 변화	수정된 문항 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
1	116.2069	173.395	.463	.837
2	114.6724	182.154	.291	.841
3	114.6897	182.288	.301	.841
4	114.9655	185.788	.047	.845
5	115.8448	173.607	.512	.836
6	115.6379	171.007	.563	.834
7	115.8621	180.963	.233	.842
8	115.9828	180.614	.194	.844
9	115.7759	172.037	.537	.835
10	116.0517	185.032	.028	.849
11	116.3276	192.786	.237	.855
12	117.1034	189.217	.135	.850
13	116.5862	197.264	.405	.859
14	116.2414	199.485	.440	.862
15	116.6207	191.397	.200	.853
16	116.8966	198.691	.437	.860
17	116.4655	185.446	.015	.849
18	117.2759	187.537	.081	.845
19	117.6724	179.557	.463	.839
20	116.5000	178.149	.553	.837
21	117.2241	175.019	.565	.836
22	117.3276	173.207	.651	.834
23	117.2759	171.993	.654	.833
24	117.6207	177.152	.496	.837
25	117.6724	177.979	.468	.838
26	117.3103	175.165	.540	.836
27	117.2759	177.186	.484	.838

28	117.2759	179.045	.357	.840
29	117.3276	179.031	.458	.839
30	117.0862	183.589	.136	.844
31	117.1207	184.459	.085	.845
32	116.8103	177.314	.477	.838
33	117.2931	183.158	.182	.843
34	117.6724	179.557	.463	.839
35	116.5000	178.149	.553	.837
36	117.2241	174.017	.564	.836
37	117.3276	173.207	.651	.834
38	117.2758	171.980	.652	.833
39	117.6207	177.152	.496	.837
40	117.6724	177.979	.468	.838
41	117.3103	175.165	.540	.836
42	117.2759	177.186	.484	.838
43	117.2759	179.045	.357	.840
44	117.3276	179.031	.458	.839
45	117.0862	183.589	.136	.844
46	117.1207	184.459	.085	.845
47	116.8103	177.314	.477	.838
48	117.2931	183.158	.182	.843
49	117.2241	175.019	.565	.836
50	117.4676	173.267	.655	.834
51	117.2959	171.994	.652	.833
α=.8382				

##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항목들에 대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였으며 요인들을 추출해 내기 위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4>에 제시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인 51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판 검사지에서 총 4개 요인 27문항이 추출되었다. 우선 KMO 값이 .808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chi^2=3074.832$ ,  $p=.001$ 로 나타나 표본 적합도와 요인 분석의 적합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체적 자기 손상 요인에 관련된 문항들은 5, 11, 12, 14, 15, 17, 21, 24번 문항들로 나타났으며, 대상적 자기 손상 요인에 관련된 문항들은 29, 33, 35, 38, 42, 43번, 자기조절 손상 요인에 관련된 문항들은 44, 46, 47, 50, 52, 54, 55, 56, 57, 58번, 관계적 자기 손상 요인에 관련된 문항들은 25, 27, 28번 문항들로 나타났다. 삭제된 각 요인들에 대한 문항을 보면 먼저, 주체적 자기 손상은 3, 6, 7, 8, 10, 16, 18, 20, 22번 문항이며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갖는 낮은 감정에 대한 외상의 3번 문항은 자기 지속성 손상에 관련하는 요인으로 창의적 능력을 요구하는 예술에서 부채질 수 있는 심리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6, 7, 8번 문항은 자기반성 손상을 의미하는데 주체적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자신을 분석하는 사고가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는 신체를 중심으로 예술의 창조를 추구하는 무용 예술인의 심리와는 거리가 먼 의미인 것이기에 삭제된 것으로 본다. 10번 문항은 자기자각 손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집중할 수 없다는 의미로 무용에서 느낌과 감정은 중요한 요소이고 몰입이 없이

는 움직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의 문항이 삭제된 것으로 예상된다. 16, 18, 20, 22번 문항은 자기 주도적 손상과 통합적 손상을 의미하는데 특히 신체를 중심으로 예술을 발현하는 무용에서는 자기 주도적 삶이 높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본다. 대상적 자기 손상은 32, 37, 40, 41번 문항으로, 32번은 나의 잘못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자기에 대한 의미이고 37번은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주체적 자기손상	대상적 자기손상	자기조절손상	관계적 조절손상
5. 어떻게 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722	.009	-.181	.117
11. 내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주 혼란스럽다	.660	.021	.327	.080
12. 내 마음의 변화에 주의집중하기 어렵다	.615	.344	.125	.162
14. 남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 나만 잘 못 느낀다고 생각된다	.582	-.075	.016	-.052
15.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	.537	.138	.005	.306
17.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처해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462	.091	.026	.113
21.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413	.037	.128	.004
24. 몸이 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409	-.118	.319	.089
29.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207	.681	.090	-.193
33.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것이 있는 것 같다	.082	.636	-.110	.178
35. 그 당시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의 나처럼 되지 않았을텐데 하고 후회하곤 한다	.301	.529	.285	.019
38. 나는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들을 한 것 같아 종종 후회스럽다	.005	.443	-.161	-.033
42. 나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렵다	.198	.410	.075	.284
43. 내 자신이 아주 작아지는 감정에 사로잡힌다	.240	.403	.391	.219
44. 나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362	-.005	.716	.087
46.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134	.296	.672	.109
47.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일에 몰두 할 수가 없다	.060	.082	.648	-.102
50. 불편한 감정이 들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한다	.108	.194	.617	.330
52. 화가 날 때 이성을 잃을까봐 최대한 내 감정을 억누른다	.115	.122	.582	.071
54. 사소할지라도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066	.183	.560	.190
55. 폭식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아예 먹지 않기도 한다	.005	.110	.531	.016
56. 나는 진정시키거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302	.236	.506	.137
57. 기분이 좋지 않으면 견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117	-.301	.474	.093
58. 나는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267	.002	.412	-.118
25.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써서 피하려 했지만 같은 어려움이 반복된다	.290	.086	.006	.656
27. 나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민감하다	.175	.012	-.135	.617
28.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할까 봐 신경을 쓴다	-.241	.233	.092	.549
KMO	.808			
Bartlett	$\chi^2=3074.832$ p=.000			
Cronbach's $\alpha$	.714	.682	.706	.735



는 죄책감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이며 42번과 43번 문항은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관점에 대한 수치심인데 무용예술인에게는 무관한 의미인 것이기에 삭제된 것으로 본다. 자기조절손상은 48, 49, 51, 53번 문항으로 과도한 감정에 의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48번 문항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49번 그리고 51, 53번 문항의 감정표출을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감추는 과잉자기조절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을 주로 이루는 예술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서는 주체적 자기 손상 요인은 .714, 대상적 자기 손상은 .682, 자기조절 손상은 .706, 관계적 자기 손상은 .735로 나타나 각 요인들의 양호한 신뢰성을 보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test-retest)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은 <표 5>에 제시되었으며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검사와 재검사 점수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상관계수는 .723에서 .805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4개 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기조절 손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계적 자기 손상, 대상적 자기 손상, 주체적 자기 손상 순으로 높게 나타나 무용예술인들이 자기 파괴적, 과잉 및 과소 자기조절 성향을 높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기 자각 및 자기 주도성 측면이 강조되는 주체적 자기 손상에 대해 낮은 인지수준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 검사-재검사간 상관

	검사 M(SD)	재검사 M(SD)	Pearson 상관계수
자기주체 손상	3.45(.77)	3.10(.19)	.699***
대상적 손상	3.87(.48)	3.49(.29)	.714***
자기조절 손상	4.32(.71)	3.51(.33)	.836***
관계적 손상	4.09(.25)	3.36(.54)	.752***

###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적합하게 나타난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검증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chi^2$	Q	GFI	AGFI	RMR	RMSEA	TLI	CFI
898.26	2.97	.906	.899	.05	.05	.901	.889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는 각 요인의 적재치가 .35에서 .72로 나타났으며, 측정오차 변량은 .13에서 .64의 값을 보여주었다. Q(카이제곱과 자유도의 비;  $\chi^2/df$ )는 2.97로 나타났으며, GFI는 .906으로, AGFI는 .899, RMR은 .05, RMSEA는 .05, TLI는 .901 그리고 CFI는 .889로 나타나 유의한 적합도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무용예술에서 필요한 예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외상화된 자기체계 요인을 중심으로 무용예술인의 부정적인 심리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주체적 자기 손상 8문항, 대상적 자기 손상 6문항, 자기조절 손상 10문항, 관계적 자기손상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내적일치도 계수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난 문항의 내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셋째,  $\chi^2/df(2.97)$ , GFI(.906), AGFI(.899), RMR(.05), RMSEA(.05), TLI(.901) 그리고 CFI(.889)값들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한 결과가 나타나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의 적합도 지수평가는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신뢰도에 대한 시간적 일관성을 알아 본 4개의 하위요인의 검사-재검사 간 상관관계는 .699~.836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을 충족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항들의 전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alpha=.8382$ 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 계수 값을 보여주어 무용예술인에게 적용 가능한 문항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Cronbach<sup>15)</sup>가 개발한 신뢰도 추정 결과에서는 .682-.735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가 제시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51문항 4개 하위요인이 구성되었고, 주체적 자기 손상 요인은 자기지속성 손상을 의미하는 1번, 2번, 4번 문항과 자기반성 손상을 의미하는 9번 문항, 자기자각 손상을 의미하는 13번 문항, 자기 주도성 손상을 의미하는 19번 문항, 자기통합성 손상을 의미하는 23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관계적 자기조절 손상요인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불신하는 26번 문항이 삭제되었고, 대상적 자기 손상 요인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자기 손상을 의미하는 30번과 31번 문항, 그리고 나쁜 일의 발생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죄책감을 갖는 정서의 36번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자기조절 손상 요인은 불안과 긴장을 조절하지 못하는 과소 자기조절 손상을 의미하는 45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무용예술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예술을 표출하는 특성이 심리와 신체를 함께 공행하는 독특성 아래 감정 표현과 예술작품의 제작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나 이타적인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예술 감성에 따른 감정의 의미가 작용되어 이상의 문항들이 삭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KMO값과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알아 본 결과, 적합한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모델의 지수가 5.0 이상이면 모델의 수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chi^2/df=Q$ 는 2.97로 나타났고 기초적합도지수인 GFI와 조정적합도지수인 AGF도 .90 이상이면 적합하다는 기준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원소평균자승차인 RMR은 부합도가 .05 이하면 모델이 적합하고 원소 간에 평균차이를 의미하는 RMSEA는 .08이하에서 타당하며 TLI와 CFI는 1에 근접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 모델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 구성개념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시한 검사-재검사 점수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에서는 4개요인 모두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3주간 간격을 두고 외상화된 자기체계에 대한 시간적 일관성을 확인하였으며 4개 요인의 평균은 자기

15) Cronbach, Lee. J(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pp.297-334.

조절 손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계적 자기 손상, 대상적 자기 손상, 주체적 자기 손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무용예술을 이루는 관점에서는 자기 파괴적, 과잉 및 과소 자기조절 성향을 높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기 자각 및 자기 주도성 측면이 강조되는 주체적 자기 손상에 대해 낮게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자기조절 손상 요인이 외상화된 자기체계에 가장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김정숙(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몸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심리적 요소가 갖는 문화적 정체성의 의미와 맥을 같이하여 무용수가 인지하는 객체화 신체의식 즉, 예술의 역량적 관점에서 거시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기조절 손상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부적인 원인은 무용예술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내용들 중 특히 체중조절에 의한 폭식과 단식의 불균형에 의한 몸의 상쇄, 테크닉 수련에서 발생하는 부상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이는 무용예술인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는 것은 심신의 위협을 초래하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용예술에서 발생하는 심리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무용예술 저변 전반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긍정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예술을 포함하는 역량의 의미는 예술의 세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더불어 예술작품의 완성을 보다 견고하게 한다. 풍부한 노력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로서, 역량은 많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심리적 산물이다. 많은 무용예술인들에게 예술역량은 그들의 독특한 예술세계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심리의 분석 및 적용을 통해 증강이 가능한 예술역량은 무용예술인의 창의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심리분석으로 그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무용예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흥미가 있는 활동의 연속성을 이루어가며 창의성을 보다 중점적 매개로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선행연구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무용은 예술이며 예술로서의 무용은 보편타당성이 전제되는 학문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무용의 예술적 객관성을 강조한 황희정<sup>16)</sup>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무용예술의 역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지지하였다. 무용은 나의 자아가 곧 타자의 자아이며 자아와 타자가 하나로서 열린 소통의 장을 가진다고 밝히며 무용예술에서 몸의 언어와 소통을 강조한 박소영<sup>17)</sup>의 연구는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부정적 경계 심리에 대해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해준과 최진실<sup>18)</sup>의 연구에서도 무용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경험적 진실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고 주체적 자아에 대한 높은 인지를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맥을 함께 하면서 무용예술인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메를르 폰티의 연구<sup>19)</sup>는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서 몸의 특성을 체화(la incarnation)된 정신과 의식 그리고 주체로 강조하며 삶의 근원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자신의 의식이 타인의 몸과 내속되어 있음을 체험한다면 타인에 대한 지각과 의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타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면 상호주체성이 형성되어 타인을 정연하게 인식하고 곧 서로의 의도를 알게 되는 관계 양식이 지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의식은 몸의 매개에 의해 사물들에게로 향하는 심리 현상이다. 움직임을 습

16) 황희정(2010), 무용예술의 개념과 그 객관성 연구, 『대한무용학회』 63, pp.307-322.

17) 박소영(2017), 무용예술에서 본 몸의 언어와 인간감성의 소통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1(2), pp.169-185.

18) 이해준, 최진실(2017), 무용전공대학생이 인지하는 '나', 『한국체육학회지』 56(1), pp.633-644.

19) 조광재(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p.381.

득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몸으로서 인간적인 경험의 몸이며 동시에 움직임의 주체로 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결국 체화된 의미란 곧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몸에 대한 경험에서 지각을 통해 습득되는 본질과 현존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다룬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의미란 몸을 매개로 하는 무용예술에서 현상적 세계를 다루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일반 예술철학이 근간이 되는 학문적 토대 아래 100년의 시간을 걸쳐 예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무용예술의 이론적 구성과 구체적인 실제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적 문화예술의 특수성이 토대가 되는 무용예술의 이론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기초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심리이론이 신체를 매개로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무용예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은 이제는 분명한 사실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무용심리의 자아분석에 관련된다는 사실은 자기조절성향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입증되었고, 그것이 무용예술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용예술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 즉, 트라우마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예술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곧 부정적 심리요소가 무용예술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자기체계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용예술의 다양한 심리 매개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도 무용예술의 중요한 매개인 무용수의 심리에 대해 의미 있게 접근하였고 그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사실은 보다 확연해진다.

대부분의 무용예술이 무대에서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술에 대한 기초적 학문소양이 결여된 상태로 예술과정이 학습화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심리적 측면에서 이론의 체계적인 구심점을 갖추는 것인데,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통해서 부정적인 자기체계를 이해하고 부적인 외상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구인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해소 작용을 상승시켜 예술에 대한 몰입을 확장시켜 가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학문적·실천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술적 경험에 근거한 심리이론의 접근으로 긍정적인 자기체계를 이루어 발전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같은 심리구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즉, 무용예술에서 갖는 심리 상태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으며, 신체를 매개로 예술을 수행하는 무용예술인에게 내적·외적으로 수반되는 영향력에 대한 심리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론을 통해 실제적으로 유용한 심리구인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기반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본 논고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부적요인에 대한 탐색과 발췌가 무용예술에 제공되어져야 할 긍정적인 심리구인을 상승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며, 무용예술에서 필요한 심리이론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아, 향후 무용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간학문적 초석으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문화와 예술 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변을

토대로 무용예술에서 심리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역량을 심도 있게 질적으로 강화를 도모해나간다면, 앞으로 보다 풍부한 무용의 예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술역량은 과거를 근거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매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미학·공학·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를 접목함으로써 무용예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술역량을 논하는 거시적 연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조광제(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 Allen, J.(2001). *Traumatic Relationships and Serious Mental disorders*. 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 Mary(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고주혜, 김승재(2006).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신체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5): 199-210.
- 김말복(2005). 무용수의 몸. 『무용예술학연구』, 15: 1-29.
-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객체화 신체의식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26: 51-63.
- 김정은, 신현군(2004).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를 통한 무용예술에서의 미학적 신체관. 『움직임의 철학』, 12(1): 447-465.
- 김지원(2016). 공연예술로서 무용의 '생명적 기능'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33: 195-222.
- 나일화(2011). 들뢰즈(G. Deleuze)의 사유를 통해 본 무용예술에서의 유목적 신체에 관한 논의. 『무용예술학연구』, 32: 1-24.
- 박미영(2012).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개념에서 본 무용예술에서의 감정. 『움직임의 철학』, 20(3): 275-292.
- \_\_\_\_\_ (2013). 무용예술에서의 타자의 시선과 몸. 『움직임의 철학』, 21(1): 317-333.
- 박소영(2017). 무용예술에서 본 몸의 언어와 인간감성의 소통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 융합교육연구』, 21(2): 169-185.
- 박영선(2017). 예술과 교육 - 실러의 미적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5): 121-148.
- 박유정(2017). 하이데거와 예술교육 - 예술교육의 역사와 하이데거. 『한국문화융합학회』, 39(6): 389-414.
- 성창훈, 유현경(2004). 청소년 무용 전공생의 신체적 자기지각 구성요인. 『한국체육학회지』, 43(6): 909-917.

- 유진, 장귀옥(2003).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 프로파일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235-248.
- 이승건(2007). '표현미학'에서 본 무용예술. 『미학예술학 연구』, 25: 285-321.
- 이해준, 최진실(2017). 무용전공대학생이 인지하는 '나'. 『한국체육학회지』, 56(1): 633-644.
- 장진희, 안현의(2011).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3(2): 359-385.
- 정연수, 박중길(2013). 무용열정과 정체성, 과제관여의 인과적 관계 및 모형 안정성 검증. 『한국무용과학회』, 24(3): 23-38.
- 정은주(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핵심역량의 경험적 탐색.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황미숙, 권오륜(2002). 현상학을 통한 무용예술에서의 신체관. 『움직임의 철학』, 10(2): 419-435.
- 황희정(2010). 무용예술의 개념과 그 객관성 연구. 『대한무용학회』, 63: 307-322.
- Cronbach, L.(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297-334.

## **An Analysis of Dance Psychology for Enhancing Arts Competency**

**Kim, Jung-Suk**

Researche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art competence required in the art of dance in general, and to analyze the negative psychological factors to the dance artists, focusing on traumatic self-system factors. Based on the study of Jang Jin and Lee Hyun(2011) who developed the traumatized self-system scale, the research analysis was composed of item descrip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using SPSS and AMOS statistical program. Four factors (I-self, Me-self, Self-regulation, Relational self) and 27 items were finally identified, and it was revealed that Self-regulation factor was an important psychological factor in dance art. This study showed that the traumatized self-system was a psychological factor easily applicable to the psychological analysis for enhancing the competence of dance art, and understanding the traumatized self-system helped to eliminate negative psychological factors so that it could promote positive reinforcement in the arts.

Keywords: Arts competency(예술역량), Traumatized self-system(외상화된 자기체계), Dance psychology(무용 심리), Dance art(무용 예술), Psychological factors(심리요인)